

하루만 맡겨도 이자 쏠쏠... '파킹통장' 뜬다

불안한 주식·채권 대신
단기간 금융 상품 인기
광주은행 '머니파킹통장' 등
시중 은행들 관련 상품 출시
파킹통장 최고금리 年 3%



주차하듯 하루만 맡겼다가 돈을 찾기도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 통장'이 새로운 재테크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하루만 맡겨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파킹 통장'이 주목 받고 있다. '파킹(Parking) 통장'은 잠시 주차를 하듯이 일정금액을 하루만 맡겨도 약정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수시 입출금식 통장을 말한다. 금융 소비자들은 불안한 주식·채권 대신 '짧고 굵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 금융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11월 현재 저축은행을 제외한 광주지역 은행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운데 연 2%대 금리를 주는 상품은 없었다.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파킹 통장의 최고 금리는 연 0.6~3.0%으로 폭이 넓다. 하루만 돈을 맡겨도 연간 금리를 365일로 나눈 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비교적 높은 금리를 주며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가입 조건은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가입 금액 한도, 나이 제한, 계약 기간 등 가입·우대 조건이 까다로워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가입자 1000명 돌파를 앞둔 광주은행 '머니파킹통장'은 연간 최고 금리가 1.6%이다. 만 17세 이상부터 만 30세 이하까지 광주은행 모바일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3년이다. 일반저축예금 금리는 0.1%~0.2%인 반

면, '머니파킹통장'은 이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머니파킹통장' 가입 시 예금잔액 범위에 따른 4가지 구간 중 가입자가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을 선택하면 매일 최종잔액 기준으로 ▲파킹구역A 최저 10만원 이상~최고 30만원 이하 1.3%포인트 ▲파킹구역B 최저 30만원 이상~최고 50만원 이하 1.4%포인트 ▲파킹구역C 최저 50만원 이상~최고 70만원 이하 1.5%포인트 ▲파킹구역D 최저 70만원 이상~최고 100만원 이하 1.6%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돼 매달 네 번째 일요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수수료 면제 혜택도 다양하다. '머니파킹통장'에 가입하면 조건 없이 전자금융타행이체수수료와 당행 및 GS25편의점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혜택을 한 달

에 3번까지 받을 수 있다. 지인이나 친구에게 '머니파킹통장'을 추천하면 최대 월 10회로 수수료 면제혜택을 늘릴 수 있다. 광주은행 '머니파킹통장'과 같이 가입 연령이 20~30대로 제한된 상품의 경우, 사회 초년생들이 이해해 볼 만하다. KB국민은행 'KB스타트 통장'은 만 18세 이상~만 35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하까지만 연 1.0%의 최고 금리가 적용된다. 추가 금액부터는 연 0.1%의 이율을 적용한다.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과금 납부 이력이 필요하다. 최초 가입액이나 예치 금액이 정해진 상품도 상당수다. 우리은행 '우리삼성CMA보통통장'은 최초 가입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통장을 만든 뒤에는 이 액수를 유지하

■ 주요 시중은행 '파킹통장' 현황

은행	상품	금액	금리
광주	머니파킹통장	100만원 한도	1.6
KB국민	KB스타트	100만원 한도	1.0
우리	우리삼성 CMA보통	없음	0.9
KEB하나	KEB수퍼플러스	1억원 이상	0.6
SC제일	마이즐 통장	설정액 100만~10억원 유지시	1.0
신한	주거래S20	200만원 한도	1.5
NH농협	NH1934	100만원 한도	3.0

<자료:각 은행>

지않아도 된다. 반면 KEB하나은행 'KEB수퍼플러스'는 예치금이 500만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 통장에 1억원 이상 예치하면 연 0.6%의 최고 금리를 적용 받는다. SC제일은행 '마이즐 통장'은 100만원 이하까지만 연 1.0%의 금리를 주고, 초과 금액부터 연 0.5% 이율을 적용한다. 설정액(100만~10억원) 이상으로 예치금을 유지하면 설정액까지는 최고 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외 신한은행 '주거래 S20통장'은 신한 카드 결제실적과 휴대폰 자동이체 실적이 있어야 우대 금리(연 1.5%)를 제공하며, 연 3.0%로 최고 금리를 내세우는 NH농협은행 'NH1934 우대통장'은 급여 이체나 오픈뱅킹 이용 실적 등이 필요하다. 백의성 광주은행 디지털전략부장은 "머니파킹통장은 금액구간별로 정기성예금에 준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도 입출금이 자유로워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금융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더 쉽고 재미있는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보, 신용등급 무관 온라인 매출채권보험 출시

다이렉트 보험 등 2종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는 가입요건을 완화한 온라인 매출채권보험 2종을 이달 초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한 손실금을 최대 80%까지 보상받는 공적 보험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온라인 심플보험'은 기존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신용도가 취약한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도 가입 문턱을 낮춘 상품이다. 계약자가 가입할 수 있는 총 보험한도는 1억원이고, 거래처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한도는 최대 4000만원이다. 보험료율은 1.1~1.5% 수준이고, 보상은 70%다. '온라인 다이렉트보험'은 거래처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계약자가 가입할 수 있는 총 보험한도는 5000만원이고, 거래처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보험료율은 1.0~1.5% 수준이고, 보상은 60%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매출채권보험 'B2B 플러스보험'은 일반적인 매출채권보험처럼 판매위험을 보장(또는 부도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담보로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도 B2B 플러스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 상환불능위험을 줄일 수 있어 외담대 이용기업을 확대할 수 있다. 상환불능위험 감소로 외담대 이용기업의 대출금리 인하도 가능한 상품으로 현행기준 중소기업은행과 외담대 약정된 업력 1년 이상의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상은행과 업종은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보 호남영업본부 관계자는 "여수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지난해 7월 주 거래처의 부도로 연쇄도산의 위기에 놓였지만 같은 해 가입한 매출채권보험으로 1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급한 불을 껐다"며 "신보는 앞으로 고객 수요에 맞춰 시장 수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비소비지출 월 114만원...역대 최대

전년비 7만3천원·6.9% ↑
조세·사회보험 증가세 높아

다달이 빠져나가는 세금과 이자,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이 1년 전보다 7만3000원 늘어난 114만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6.9% 늘어난 113만8200원으로 집계됐다. 비소비지출 규모는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동 분기는 물론, 모든 분기를 통틀어도 가장 컸다.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경조사비, 종교단체 헌금 등 소비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가계 지출이 비소비지출에 속한다.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올해 들어서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다소 주춤하지만, 항목별로 뜯어보면 경상조세(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등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의 비중과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경상조세는 28만46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7% 증가했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3.0% 늘어난 27

만4900원이었다.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6.2%) 이후 가장 작았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가구와 가구 사이에 이동한 돈을 말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내는 경조사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따라서 부모나 자녀에게 보내는 용돈 등도 포함된다. 사회보험과 연금 납부액이 각각 7.5%, 5.9% 늘어나 16만6500원, 16만1400원으로 집계됐다. 이자 비용이 10.5% 늘어난 11만8500원이었다. 시장금리는 내렸지만,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외 비(非)경상조세(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득·등록세 등 일회성으로 내는 세금과 과태료 등)는 8000원이었다. 분위별로는 소득 하위 20% 해당하는 1분위 비소비지출이 13.4% 증가한 34만8700원에 달했다. 증가폭은 2018년 1분기(13.4%) 이후 최대다. 2분위와 3분위 비소비지출은 각각 5.7%, 11.1% 증가한 61만8900원, 96만9000원이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비소비지출은 5.7% 증가한 246만1100원, 4분위는 5.1% 늘어난 130만400원이었다. /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월세도 신용카드로 낸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지정

현금이나 계좌이체가 아닌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내년 6월경 출시된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로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 거래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거래를 찾아내는 서비스도 내년 5월경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으로 늘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혜택을 받는다. 신한카드가 내년 6월경 출시할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가능했던 월세를 납부를 신용카드로(월 200만원 한도)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임대인 개인이 신용카드로 가맹점이 되고, 카드 회원(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당장 돈이 없어도 카드 결제로 밀리지 않고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얻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투명화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5월경 보이스피싱 적발을 위한 머신러닝 방식의 금융 의심 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를 내놓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원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지만,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받았다. 여러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대표 통장 등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개별 은행이 내부 정보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데,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

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전 금융회사에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찾아낼 수 있다. 핀테크 업체 레이니스트는 고객의 수입·지출을 분석해 최적의 예·적금 상품 조합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년 3월경 출시한다.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 보맵파트너, 플랜에셋 등이 내년 2월부터 차례로 출시할 레저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는 필요할 때만 쓰도록 온·오프(On-Off) 스위치 방식으로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KB국민카드는 카드사가 영세 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에 카드 매출 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바로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내년 7월 내놓는다. (주)피네보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중계 시스템(VAN)을 내년 12월경 출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